

격랑의 현해탄...한일 정상회담 전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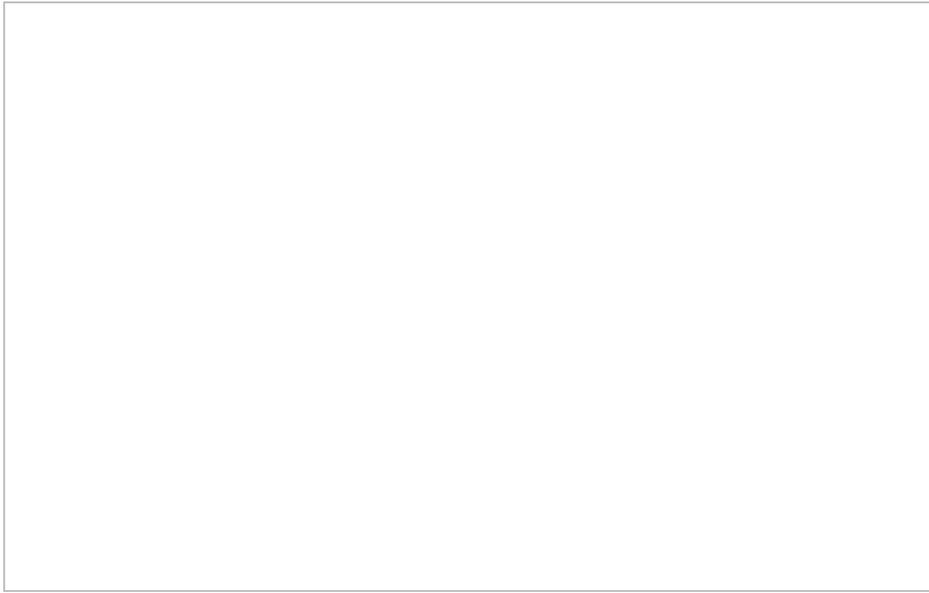
최우정 기자 ▼

등록 2013.08.22 22:01

기사 공유하기 ▶



가+ | -가 | ✉ | ☰



[앵커]

뚜렷한 우경화 행보를 하고 있는 일본이 한편으로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쿠다 전 총리까지 방한해 한일관계 발전을 이야기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쯤 해야하는지 최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열린 한일포럼에 참석해 정상회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후쿠다 야스오 / 전 일본 총리

"한일양국이 빨리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화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진창수 /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

"야스쿠니 신사에 간다던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어떻게 할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려면 일본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아오야마 / 홋카이도 신문 서울지국장

"아베총리도 무라야마담화, 고노 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제안을 하면 신중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철희 /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일본도 제안해오고 우리도 그거에 신중히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좋다."

대북 공조와 미국의 한일 관계 정상화 요청 등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일본 정치인과 일본 국민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나카노 아키라 /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

"일본사람 전부가 정치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달 초 열리는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공유하기 ▶       가 + | - 가   상위 ▲

100자평 쓰기 전체 댓글 보기 [1+]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가입 | 삭제기준 | 도움말

SNS 내보내기 ▶     

100자평 쓰기

윤중호 (yjho****) 2013.08.22 22:46:28  신고 삭제

후쿠다 왓! 결국 협박어군, 우리말 안들어면,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거지? 아직 멀었다, 일본인이 친한이 어디있냐? 우리네 부에 스며있는 친일 분자들이 같이 공작을 하고있다, 쉽게말해 "정-경 분리" 하면된다,

댓글쓰기 ▼ 찬성 0 반대 0

인기뉴스

방영 뉴스 프로그램 열기 ▼

중영 뉴스 프로그램 열기 ▼

